

MERITZ 메리츠화재

걱정인형 거리홍보 캠페인 -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



7월 부터 시작된 메리츠화재의 새로운 광고 메리츠 걱정인형이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걱정을 대신하고 행복을 전해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걱정인형은 현재 TV광고, 라디오 광고, 옥외 광고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걱정인형의 탄생을 기념해 더 많은 고객이 걱정인형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거리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23일, 명동에서는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가 밀집지역을 방문한 직장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 캠페인이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명동 변화가 중심 무대를 활용하여 메리츠화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걱정인형 탈 인형도 함께 배치했다. 특히 행사 내내 노출된 걱정인형 CM song과 걱정인형들의 귀여운 율동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앞으로 메리츠 걱정인형 거리홍보 캠페인은 영등포, 청계천, 강남 등 변화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GSC/GSN 업무협약식



7월 26일, 메리츠화재는 역삼동 GS타워에서 승용차요일제 보험 활성화와 사업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GS 칼텍스 /GS넥스테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하게 된 GS칼텍스는 국내 대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석유류 제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GS넥스테이션은 GS칼텍스의 자회사로 정비/중고차 판매/잡화점/보험 판매 등 GS그룹 내 통합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현재 GS칼텍스와 연동해 OBD 운행정보 전송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이번 달부터 승용차요일제 보험 시스템의 보완이 일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 TM 시스템을 개발하여, GS넥스테이션과 연계 하고 GS넥스테이션 TM센터 구축 및 상담원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공동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보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5천 건 이상의 승용차요일제 고객 확보와 효율적인 브랜드 노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운행거리 연동 저탄소 녹색자동차보험 최초 출시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박석희)은 정부부처인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수원시와 손잡고 1년간 자동차 운행거리를 단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환경

보호지원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녹색자동차보험을 9월 1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부산시와 수원시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으로, 보험가입 후 1년 간 전년대비 차량운행 감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OBD(On Board Diagnostics, 운행정보확인장치) 단말기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1년 후 그 감축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입자는 한화손해보험과 제휴를 맺은 3개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석 앞두고 독거노인 가정방문 봉사활동



한화손해보험 박석희 사장은 추석을 앞둔 9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석희 사장을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봉사단 14명이 함께 참여해 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총 80명의 가정을 방문했다. 2009년부터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죽음체험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하늘스폰 이야기" 행사를 진행해온 시립 동작노인복지관이 행사를 주관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 부산봉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결혼 후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부부 8쌍을 모시고 "50년만의 신혼여행, 허니문 어게인" 행사로 제주도 여행을 마련했다. 이 행사는 부산 동래구 노인복지관이 주관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서순재(76세)·정원용(77세) 부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지나온 삶과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한화손해보험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업계 최초 하이브리드카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롯데손해보험은 7월 13일 손보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친환경자동차 특별요율'을 출시하였고 8월 16일부터 적용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 보험료 할인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이브리드카 고객은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 1% 할인 혜택은 당사에서 판매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하우머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우머치' 자동차보험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지난 5월 초 판매 개시 이후 하루 평균 100대 이상 팔리고 있을 정도로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롯데손해보험은 보험료 할인 외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더욱 발굴, 제공할 계획이다.

2011 하계휴양지 차량 무상점검 및 현장출동 서비스 시행



롯데손해보험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 하계휴양지에서 '2011 하계휴양지 차량 무상점검 및 현장출동 서비스'

를 운영했다.

이번에 실시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에서 약 20여종의 차량점검 및 오일보충 서비스, 사고에 대비한 현장출동서비스와 초동조사는 물론 가입사실증명원 발급 / 보상상담까지 피서객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했다.

앞으로도 롯데손해보험은 고객만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하계휴양지 차량 무상점검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상조업 진출



7월 14일, 그린손해보험이 관계사와 함께 그린우리상조(구 '우리상조개발')의 지분을 인수하고 상조업에 진출했다. 이번 인수는 그린손보의 각종 프랜차이즈 선두업체 인수 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상조업의 발전 가능성과 수익성을 내다보고 진행됐다.

그린우리상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회사 주요 재무정보' 중 고객 선수금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업계 상위사로서 건전한 경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표적 상조업체다.

현재 상조시장은 약 7조원 규모로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그린손보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 참여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리상조의 안정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상조업계의 리더컴퍼니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이번 그린우리상조 인수와 관련해 상조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최초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이 이루어진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회사와 계열사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임에셋 · KGA에셋 MOU 체결



7월 29일, 그린손해보험과 그린우리상조는 프라임에셋, KGA에셋과 포괄적 업무협약 및 서비스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제휴는 상조보험 출시에 앞서 대형 GA업체를 통해 상조보험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상조서비스 사업에 있어 우선선점의 발판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그린손보는 GA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상조보험 관련 업무 및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상조보험 시장공략을 가속화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전국 소아병동에 도서·도서관 기부 행사 시작



흥국화재가 전국 소아병동에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도서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벌인다.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소아 병동에서 투병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도서관 및 도서 기부 활동은 중앙대병원에서 시작했다. 흥국화재·생명 소속 임직원 10여명은 9월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병원 소아병동에 마련한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도서 1000여권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 도서관의 명칭은 '다정문고'로 정해졌다. '정과 희망이 넘쳐 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흥국금융가족과 중앙대병원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기부한 책 1000여권 중 상당수는 흥국금융가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책으로 아동용 책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을 위한 수필, 소설, 육아서적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도서관 개관식에서는 흥국금융가족 임직원들이 소아병동에 입원한 어린이환자들을 직접 찾아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로 인기를 끈 소설 '마당을 나온 암탉' 60여권을 나누어 주어 어린이들이 즐겨읽히기도 했다.

흥국화재 김용권 대표이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국의 소아병동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 및 도서관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기자단' 출범, 활동 나서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71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자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어린이 기자단'은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가정·학교·지역에서 취재한 우수 기사를 뽑아 분기마다 신문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달의 어린이 기자상', '올해의 어린이 기자상'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화정초등학교(경기도 고양시 소재) 김예슬(5학년, 여) 어린이 기자는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며 "회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사거리를 찾아 꼭 특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자와 신문, 언론에 대한 강의와 취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아 언론 꿈나무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9월 8일 오전 본사(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에서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과 김창룡 한국표준협회 회장 및 각계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서비스대상 '명

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을 가졌다.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은 고객만족경영부문에서 5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한 기관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삼성화재는 손보 업계에서 최초로 한국서비스대상에서 8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해 최고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지성무식(至誠無息, 씬 없이 정성을 다하자)'의 자세로 고객만족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는 삼성화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년 연속 1위 등 5대 고객만족 평가와 시상부문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지대섭 사장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국내 최고의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임직원과 RC(Risk Consultant)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 된 고객만족활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H 현대해상

수해지역 보상 지원 활동 및 봉사활동



현대해상은 지난 여름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7월 29일과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침수차량 긴급지원 서비스

팀을 운영했다. 이번 침수차량 긴급지원 서비스팀은 현대해상과 자회사인 하이카다이렉트, 현대손사, 하이카손사를 비롯해 하이카 지정점 견인차량 5대로 구성됐으며, 특히 수해가 많이 발생한 강남구, 서초구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차량 보상상담 및 차량점검, 사고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7월 30일에는 서태창 대표이사 및 직원 53명으로 구성된 하이라이프 봉사단이 한강 수물 지역인 독섬 유원지 일대의 수해 현장을 찾아 긴급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이카 여성운전자 교실 확대 실시



현대해상의 여성운전자 대상 무료교육인 '하이카 여성운전자 교실'이 확대 실시된다. 기존에는 분기 1회, 주로 서울 지역에 한

정되어 진행했으나, 연 11회로 횟수를 대폭 늘리고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7월 15일에는 확대 시행 첫 회를 맞은 제85회 하이카 여성운전자 교실이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실시됐다. 이날 여성운전자 교실에서는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비롯해 후면, 전면 주차 등 상황별 주차실습이 진행됐다. 특히 '건강한 운전문화 만들기 운동본부'에 소속된 전문 강사들이 1:1 개인지도를 통해 교육생 전원에게 주차실습을 실시했다.

LIG 손해보험

다문화 어린이 초청 'LIG희망드림캠프' 개최



LIG손해보험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원에 위치한 LIG인재니움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린이 50명을 초청, 2박 3일간 무료 방학캠프 프로그램인 'LIG희망드림캠프'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LIG희망드림캠프'는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주력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LIG손해보험의 다양한 나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크게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와 기초 경제·금융지식을 무료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LIG희망드림캠프의 재원은 LIG손해보험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함께 조성하는 '희망나눔기금'에서 마련된다.

한편 LIG손해보험은 '희망 플러스'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나눔 경영 주력 대상을 '미래의 희망, 어린이'로 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희망의 집짓기' 사업, 난치질병인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 등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부 교육의 메카, 'LIG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 준공



LIG손해보험은 9월 2일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에 총청 이남지역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연수시설

'LIG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인재니움 사천'은 1등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2007년 5월 첫 삽을 뜬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건축 면적 2만 1,950m²,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0여 실의 숙소와 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운동장 등 부대시설이 갖추고 있다.

LIG손해보험 구자준 회장은 "인재니움(ingenium)은 '재능, 자질, 능력, 현명함'의 뜻을 가진 라틴어로,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지원하는 교육의 메카이자 미래 비전을 달성하는 '가치실현의 장'을 의미한다"며, "기 운영 중인 인재니움 수원과 더불어 새롭게 문을 연 인재니움 사천이 고객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동부화재 베트남 호치민 주재사무소 개소



동부화재는 8월 23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금호아시아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정남 사장, 변동욱 영사, 호치민시 응웬판다이 부위원장, LOC 베트남 보험협회 사

무총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치민 주재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은 “베트남 국민과 기업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동부화재는 베트남과 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지난 6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호치민 주재사무소 개소에 대한 인가를 획득했고 향후 베트남 보험시장에 대한 조사 및 현지 영업 노하우 습득에 주력하여 수년내 현지 법인 설립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화재는 2010년 LA 지점, 2011년 뉴욕 지점 설립을 통한 미국 본토 진출, 2010년 중국내 중개 법인 출자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등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더불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진출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Forbes 2011 아시아 50대 유망기업 선정



동부화재는 지난 9월 14일,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2011 아시아 5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동부화재는 기업성장

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우량보험회사」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포브스는 지난 5년간의 총수익이나 시가총액 규모가 30억 달러 이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앞선 5년간의 수익, 경영이익, 자본이익률 등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을 분석하여 5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은 8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동부화재가 국내 금융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한국기업 : 동부화재, CJ제일제당, 한라건설,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NHN, 삼성엔지니어링 (8개)

『제38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개최

KFPA는 2011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KFPA 1층 강당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손해보험사, 학계, 소방단체 대표 및 소방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KFPA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제주 서부소방서의 양창원 지방소방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안전상은 서울 강남소방서 신영탁 지방소방교 등 17명이 수상하여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대상과 안전상 수상자 18명 모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부터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공무원들을 선발·표창하는 행사로서 올해까지 수상자는 모두 531명에 이른다.

제38회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 명단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훈격	인사혜택
1	제주 서부소방서	소방장	양창원	대상	특별승진
2	서울 강남소방서	소방교	신영탁	안전상	특별승진
3	서울 은평소방서	소방교	이재승	안전상	특별승진
4	부산 소방본부	소방교	정재혁	안전상	특별승진
5	대구 소방안전본부	소방교	전진욱	안전상	특별승진
6	인천 중부소방서	소방장	차정석	안전상	특별승진
7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방장	장동수	안전상	특별승진
8	대전 동부소방서	소방교	정연주	안전상	특별승진
9	울산 남부소방서	소방교	김종민	안전상	특별승진
10	경기 용인소방서	소방교	박찬호	안전상	특별승진
11	경기 안산소방서	소방사	김형준	안전상	특별승진
12	강원 정선소방서	소방장	전문태	안전상	특별승진
13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방장	민광현	안전상	특별승진
14	충남 서천소방서	소방장	김예규	안전상	특별승진
15	전북 소방안전본부	소방장	박병선	안전상	특별승진
16	전남 영광소방서	소방장	최성천	안전상	특별승진
17	경북 경산소방서	소방장	최성도	안전상	특별승진
18	경남 양산소방서	소방장	최기선	안전상	특별승진

화재안전 계몽용 안내멘트 제작 및 배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KFFPA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 계몽활동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KFFPA 조사연구팀에서 분석한 화재통계를 참고하여 『화재안전 계몽용 안내멘트』를 제작하였다.

안내멘트의 종류로는 공장용 출·퇴근멘트, 공장을 제외한 기타용도의 출·퇴근멘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용 멘트 및 아파트 세대방송용 멘트 등 7종이며,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소유주, 사원사 및 유관기관에는 Tape 및 CD형태로 무료로 배포하였고, 필요 시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음원 및 문안(지문)을 게시하였다.

한편 KFFPA는 화재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화재안전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8종의 화재안전시리즈 소책자, 화재안전 자석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제10차 KFFPA 자문위원회 개최



KFFPA는 2011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KFFPA의 주요정책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10차 KFFPA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 등 KFFPA업무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학계, 산업계에서 10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화재안전 계몽교육·봉사활동 및 NFPA(미국 대민교육) 전문가 초청 화재안전계몽 세미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0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발간

KFFPA는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건물 중에서 지난 2010년(2010. 1. 1 ~ 12. 31)에 발생한 화재를 조사·분석한 『2010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자료를 e-book 형태로 발간하였다.

『2010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대상 건수는 27,269건, 화재발생건수는 1,432건, 재산피해액은 277 억원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125명(사망 11명, 부상 114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아파트(10명)와 공장(1명) 업종에서만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38건(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377건(26.3%),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223건(15.6%) 순으로 나타났다. 방화(放火) 및 방화의심 건수는 68건(4.8%)이었다.

KFFPA 관계자는 “특수건물의 경우 KFFPA가 정기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시설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화재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특수건물 화재발생을 10%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수건물 우수건물 인정제도 및 화재안전교육 등 계몽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화재안전의식이 문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FFPA, 인사 발령

이동

▲조사연구팀장 사공람(司空覽)

(이상 2011년 7월 26일자)